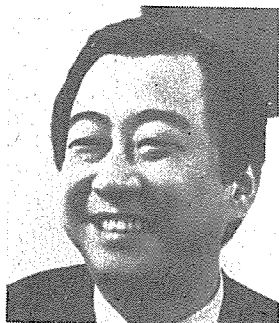


擧

거

風

풍



글·그림 金 思 達

바다가 없는 고장에서 태어난 나는 개구장이 하동(河童) 시절, 여름 한철이 그지 없는 추억으로 되살아 난다.

소위 더위를 탄다는 따위의 너절 한 기억은 없고, 불 같은 햇발에 가물치와도 같이 새까맣게 그을린 꼬마 흑인으로 마냥 즐거웠던 추억뿐이다. 언제부터 햇벌과 더위를 경원하고 저항하는 체질이 되었는지 야속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나는 여름철이 다가올 무렵부터는 으레 이열치열(以熱治熱)의 역공(逆攻)으로 맞서는 것이다. 우선 더위 때

문에 늘어지기 쉬운 신경(交感神經)의 작용을 단백질, 과즙 따위로 강화하는 한편, 땀이 나는 노작(勞作)을 강행하여 더위와 맞부딪치는 억지를 부려보기도 한다.

소위 더위를 탄다는 것은 살갗의 기능이 더위에 재빨리 적응치 않는 것이 커다란 원인이다. 자고로 더위에 대해 인간이 갖는 순응기전(順應機轉)에서 애오라지 중요한 구실을 하는 것은 발한(發汗)에 의한 체온조절이다.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더위로 말미암아 생긴 몸속의 울열(鬱熱)을 몸 밖으로 발산하므로써 몸을 방호(防護) 하는 하나의 순응현상이다.

더위에 대한 인간의 대응(對應) 관계를 보면 습도가 80%인 경우, 섭씨 25도는 30도 이상의 더위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실험적으로 인간은 섭씨 132도의 고열 속에서도

10 분간이나 지탱할 수 있으나 수증기 속에서는 섭씨 51도에서 수분도 전될 수가 없다. 즉 습도가 높아지면 실제의 온도보다 훨씬 덥게 느껴질 뿐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견디어내기 어렵게 된다. 7, 8 월에 이르러 갑자기 기온이 높아져 섭씨 30도를 웃돌고 장마철이 다가 올 무렵에는 더위에 지쳐 맥을 못 추는 예가 많다.

옛 글귀에도 「만국이 마치 화로 안에 들어 있는 것과 같다(萬國如在紅炉中)」는 표현이 있다. 우리네 속담에도 오뉴월 더위에는 암소뿔도 물러 빠진다는 말이 있거니와 우리나라 여름 한 철의 무더위도 대단하다. 삼복더위 막바지에 이르면 햇볕은 따갑다 못해 불길과도 같다. 무성한 길섶이나 우거진 수풀에서는 무덥고 후줄근한 풀내와 단내가 훅 훅 풍겨져 나오는가 하면 사방에서는 온통 메미소리마저 맵다는 듯 울어 재친다.

나는 더위가 이렇듯 사정없이 후려칠 무렵에는 방바닥에 큰대(大)자로 벌렁 누어 선풍기를 양 발 사이에 비스듬이 놓고 자연풍(自然風)으로 틀어 놓아 거풍(拳風)을 하노라면 사타구니 속을 스며 가슴께로 스쳐오르는 산들바람하며 가위 신선에 방불한 기분이다.

돈이 있고 한가한 친구들은 제 별장으로 행차를 하거나 바닷가, 산속

등으로 피서를 떠나 더위를 잊고 호강들을 한다. 그러나 그렇지도 못한 주체에 모처럼만의 휴일에 근교의 수영장엘 가거나 유원지 등으로 피서를 간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되고 만다. 심중 팔구고생바가지에 피부병이나 눈병 따위를 앓아 오기가 일쑤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곳에 한적한 읍지나 동산이라도 있다면 납량(納涼)에 오죽이나 좋으려만 이 서울 천지에서 사는 가망 천리다. 문득 이백(李白)의 하일산중(夏日山中)이란 시귀가 생각난다. 부채를 부치기조차 귀찮으니 한적한 숲속에 들어가 벌거숭이가 되어 망건을 석벽에 걸고 머리에 솔바람이나 쐬고 싶다(賴搖白羽扇, 裸袒青林中. 脫巾掛石壁, 露頂灑松風)고 했으니 주선(酒仙)인 이태백도 더위만은 술로 달래지 못했던 모양이다.

다만 나의 향리인 충북 화양동의 구슬같이 맑고 푸른 석천(石川)여울목의 명경지수(明鏡止水)에 발가숭이 몸을 담가보는 그림이나 그려볼까?

(필자=醫博·書芸家·博愛醫院長)

